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필수 아이템 '자원봉사'

주로 학생과 청년층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자원봉사. 그러나 최근 인생에서 체득한 양질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어르신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용사, 공예 강사, 문화해설사, 하모니카 강사 등 활동 내용도 다양하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은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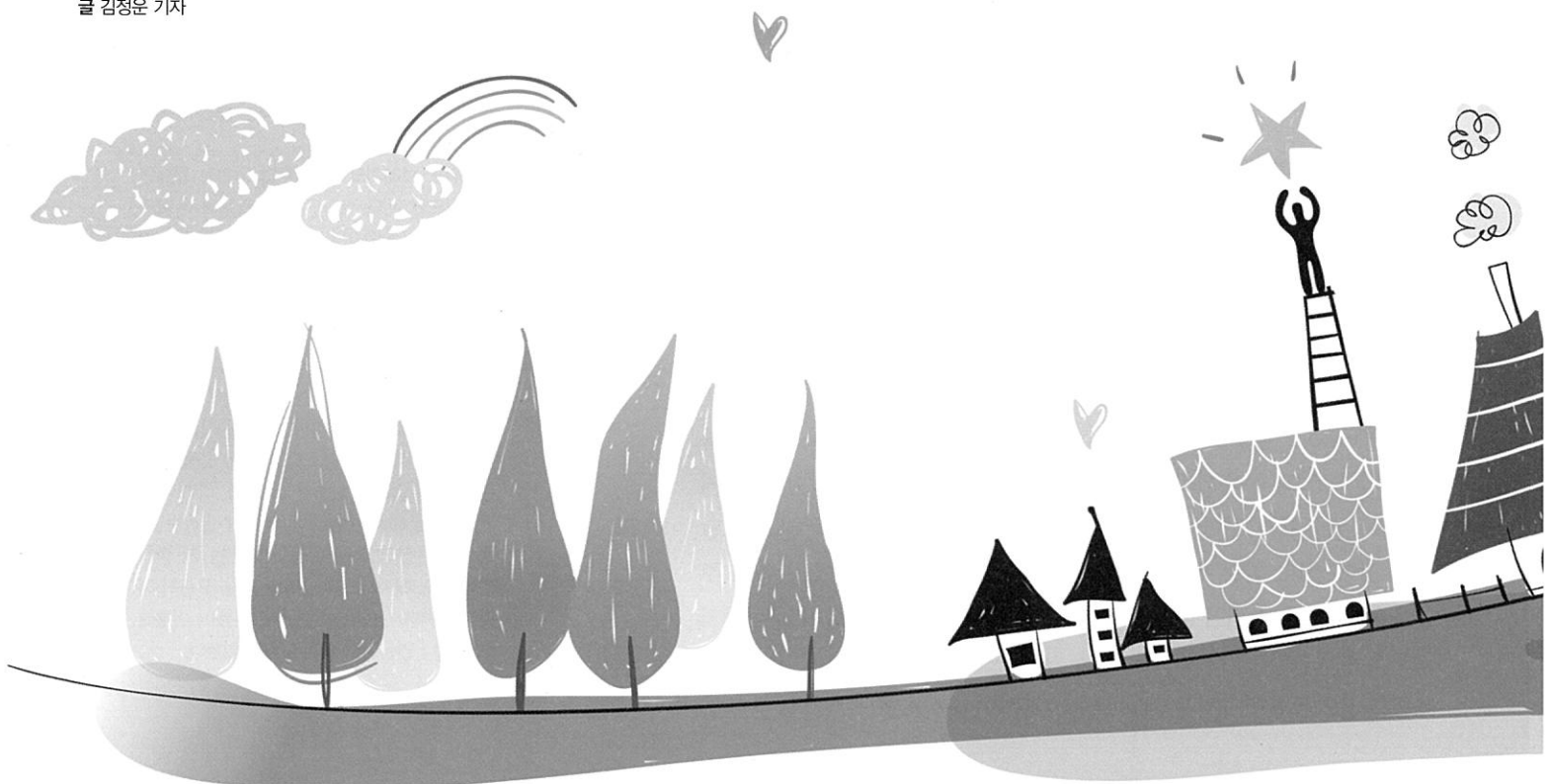
글 김정운 기자

최근 노인들의 봉사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 이후 자아실현을 위해, 장성한 자녀가 출가한 뒤 새로운 의미있는 일을 찾아서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전국의 '노인자원봉사 클럽'은 732개, 회원은 1만 5천명 규모다. 대한노인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종교기관 등 각종 사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더욱 많다.

대한노인회가 구분한 자원봉사의 영역도 생활 편의 지원, 주거 환경 개선, 환경 보호, 업무 보조, 교통정리 등 몸만 건강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부터 국제협력과 해외봉사, 공연활동, 보건의료나 교육 등 은퇴자의 경험과 지식을 다시 사회에서 활용하는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양하다.

봉사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

지난해 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김태식 어르신(65세). 경남 산청에 사는 김 어르신은 한센인 환자, 농촌지역 고령노인 등을 위해 32년 동안 무료 이발봉사를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어르신 이외에도 이날 훈장을 받은 이들 가운데는 노인들이 많았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영길 어르신(68세)이 24년간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사회복지관,





재활원 등을 찾아 다니며 조리 재능을 발휘해 국민포장을 받았고, 제주에 사는 김희강 어르신(71세)은 생계수단인 소형 어선의 보상금액 전액을 불우이웃 치료비로 써달라고 기부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또 지난해 말 충북 단양에서는 한영자 어르신(71세)이 자원봉사왕 인증패를 받았다. 2007년 나이 들어 시작한 자원봉사가 어느새 5,042시간. 일수로는 3년 5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한 셈이다. 한영자 어르신은 재가노인 식사 배달, 물리치료실 업무 보조 등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활동했다.

비슷한 시기에 청주에서도 오정근 어르신(78세)이 자원봉사왕으로 선정됐다. 오정근 어르신의 주 활동무대는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의 문화해설사를 비롯하여 전국소년체전, 숲 생태해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오정근 어르신의 자원봉사 기록은 자그마치 1만 1,745시간으로 희생과 정성이 담긴 봉사활동을 돈으로 환산할 수야 없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올해 최저임금 4,860원을 곱해보면 5,708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재능기부의 종류도 다양

최윤자 어르신(71세)은 10여 년 전에 취미 생활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이것이 인연이 되어 서울시립노인복지관에서 하모니카 강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두 차례나 암 투병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열정으로 하모니카 강좌는 복지관에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 최윤자 어르신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이기심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최 어르신처럼 새롭게 무엇을 배워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험과 재능의 사회적인 활용을 위해 봉사와 연결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해외봉사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만 50세~62세를 대상으로 시니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하는 직종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문기술을 활용해 자원봉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직능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제작소 '행복설계아카데미'도 40~60대 시니어들이 다양한 비영리 단체에 참여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평생 자식들을 키워온 노인에게 봉사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 역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어서이다. 부덕임 어르신(64세)은 전남 광주에서 치매 노인 목욕부터 새터민·다문화 가정 정착, 재활원 장애인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덕임 어르신이 봉사 활동에 발을 디게 된 것은 아버를 잃고 방황하는 아들에게 "내가 먼저 모범이 되

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바른 어머니 밑에서 아들은 이내 자리를 잡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그만두려 하자 이번에는 아들이 다시 "어머니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살아달라"고 뒷받침해줬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계기와 인연은 다르지만 어르신들이 봉사하는 이유는 다들 한결같다. 바로 봉사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부덕임 어르신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봉사는 부메랑과 같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은 내 마음에 사랑과 평화를 주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건강을 위해서도 자원봉사는 크게 권장된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은퇴노인 6,36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원봉사 활동이 수명을 4년이나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마음과 주기적인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셈이다. 건강도 챙기고 삶의 의미도 되찾는 자원봉사활동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

노인 자원봉사 안내 기관

(사)대한노인회

02-707-2730

(전국 단위 노인 자원봉사 클럽 운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6007-9100(시니어 직능클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5(사회공헌 일자리 소개)

희망제작소 행복설계아카데미

02-2031-2145(비영리단체 활동 교육)

한국국제협력단

kov.koica.go.kr(해외 시니어봉사단)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아트 봉사단
2 풀뽀음문화나눔 봉사단